



## 남원서 제작한 드라마 ‘지리산’ 흥행몰이 기대

남원에서 제작한 tvN 15주년 특별기획 드라마 ‘지리산’이 10월 23일 토요일 저녁 9시에 첫 전파를 탄다. 드라마 ‘지리산’은 지리산 국립공원 최고의 레인저 서이강(전지현 분)과 말 못 할 비밀을 가진 신입 레인저 강현조(주지훈 분)가 산에서 일어나는 의문의 사고를 파헤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배우 전지현, 주지훈, 성동일, 오정세, 조한철 등이 출연한 이 드라마는 좀비 사극 ‘킹덤 시리즈’와 ‘시그널’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와 ‘ 스위트 홈’, ‘도깨비’의 이응복 감독이 의기투합해 만든 작품이어서 제작 단계부터 2021년 하반기 최대 기대작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무엇보다 드라마 흥행이 예상되는 것은 믿고 보는 출연진에 필력과 연출력을 인정받은 제작진이 참여해 작품을 완성했기 때문이다. 또 작품 타이틀에서 볼 수 있듯이 광활한 비경을 갖춘 전북 남원 ‘지리산’을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돼 드라마 스토리와 함께 자연경관과 명소 등 볼거리도 많다는 점에서 벌써 주목받고 있다.

### 지역 알리기와 행정 결합한 남원시의 노력 ‘결실’

드라마가 방송계와 시청자로부터 관심을 받은 데에는 지난해부터 제작 지원에 힘써온 남원시의 숨은 노력이 한몫했다. 남원시는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을 비롯해 남원 일대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제작사와 여러 차례 협의해 주된 촬영 장소를 남원으로 유치하는 등 드라마 제작을 지원하는 데 힘썼다. 지난해 9월 23일에는 드라마 지리산 제작사 에이스토리, 스튜디오



1 배우 전지현 2 드라마 ‘지리산’ 제작 협약식 3, 5 배우 주지훈 4 드라마 출연진(전지현, 주지훈, 성동일, 오정세)

드래곤, 바람픽처스와 업무 협약을 통해 드라마 제작 지원을 현실화 하기도 했다.

협약을 맺으면서 남원시는 드라마 ‘지리산’ 제작을 위해 약 20억 원의 예산과 세트장 건립 등을 지원했다. 이 일환으로 드라마 ‘지리산’ 남원 세트장을 인월 지리산 흥부골 자연휴양림 안에 조성했다. 이후 드라마 주 무대가 되는 해동분소와 비담대피소 등을 순차적으로 마련했다.

남원에서의 촬영은 사실상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 올 6월까지 이뤄졌다. 촬영이 이뤄지는 약 1년여 기간 남원시 인월면 해동분소와 비담대피소 등 오피세트장을 중심으로 남원 시내, 광한루원, 와운마을 천년송,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산동부절마을 소나무 숲 등 남원시 일원과 지리산 일대가 다양하게 촬영돼 드라마 속에 담겼다.

한 주민은 “남원시가 이렇게 통 크게 드라마에 제작을 지원한 경우가 없었는데, 지리산 덕분에 우리 지역이 유명 드라마 촬영지가 된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드라마 ‘지리산’이 성공해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고 지역이 활성화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드라마 ‘지리산’은 총 16부작으로 구성된다. 10월 23일 주말부터 안방극장 tvN에서 방영되며 해외에서는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아이이치(iQIYI)를 통해 전 세계에 동시 소개된다.



1

1 촬영지 '석실' 2 촬영지 '해동분소' 3 촬영지 '뱀사골'

### 남원시, '지리산' 촬영 세트 등 적극적으로 활용

남원시는 과거 지자체들이 드라마 제작 지원을 통해 지역에 다양한 파급효과를 일으킨 사례를 참고해 드라마 '지리산' 제작에 지원했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우선 드라마 속 주요 무대인 인월면 흥부골 오픈세트장을 관광단지 로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공원공단과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 중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 11월부터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뱀사골분소에 드라마 '지리산' 기획전시관을 개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드라마 '지리산' 제작 지원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촬영지를 활용한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에 전북문화관광재단도 힘을 보탠다. 향후 남원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드라마 촬영지와 연계한 남원 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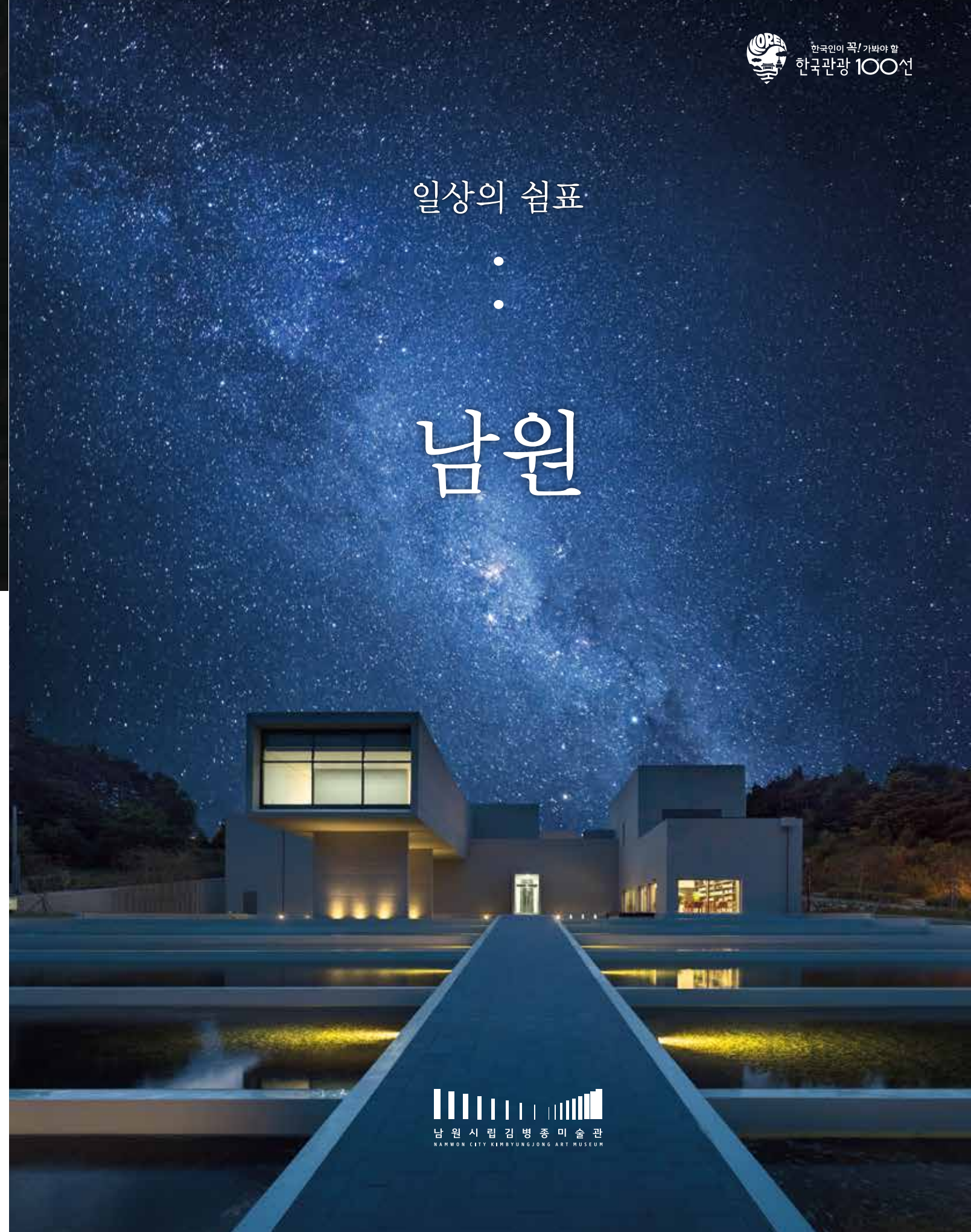
이환주 남원시장은 "드라마 '지리산' 제작 지원에 따라 지리산 일대에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서 다각도로 이를 활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드라마가 성공적으로 흥행해 지리산 중심 도시 남원이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지는 동시에 지리산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남원 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구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2



3



일상의 심포

:

남원